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3.

발 의 자 : 황 희 · 이기현 · 한민수
박 정 · 이병진 · 어기구
이용선 · 이학영 · 이연희
안규백 · 문진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,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블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.

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

설).

법률 제 호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도(步道)용 방호(防護)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)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도(歩道)용 방호(防護)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
1. ~ 6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